

▲IIS 국제심포지움(2006.7.16~20, 에딘버그)에서
의 6ICI 홍보부스 설치방법 ▲6ICI로고, 테마, 포스터
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계동위원소대회

유치를 통한 RT산업 활성화방안 연구』과제에서는
6ICI 개최 준비활동으로 우선 6ICI 홈페이지를 3월경
에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QSA Global 관계자 협회 내방



독일 QSA Global 사 관계자 및 일본 Chiyoda

Technol 사 관계자가 함께 1월 23일(월) 우리협회를
내방했다.

정종혁 상근부회장은 방문단 일행을 맞이하여 우리
협회 및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을 소개하
였다.

QSA Global 사는 Armersham 사와 AEA
Technology 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무
개편에 따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치요다테크놀(일본)
이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에스알에스테크놀(대표
토시카즈 호소다)과 지난 2006년 1월 우리나라 방사
성동위원소 취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아시아 방사선의학자들 서울에 모였다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방사선종양학워크숍 개최 -

한국 등 아시아 8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원자력협
력포럼 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의학워크숍이 1월 23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
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총 8개국 전문가 약 30
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자궁경부암과 비인강
암의 항암방사선 병합요법 치료기술의 표준화'를 목
적으로 서울 공릉동의 원자력의학원에서 열렸으며,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요법 사례 및 새로운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 성과와 비인강암의 화학적방사선치료 등의
논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
와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 방사선종양학과 전문
의료진이 참가하였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아시아원자력포럼의 의학위
크숍은 인적교류를 통한 선진 치료기술을 전파, 저개
발 아시아 국가의 방사선 치료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 내 방사선 치료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목
표 아래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의 방사선치료를 위한 지침



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동안 저개발국가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자궁경부암의 치료 프로토콜 개발에 집중해 온 아시아 원자력협력포럼은 앞으로 이비인후과 및 내과 종양의 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의 지원 하에 일본과 협력, 아시아 내 암 퇴치에 적극 동참하여 방사선종양학의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을 예정이다.

전국 886개 방사선원에 위치추적시스템 가동

오는 3월부터 원자력시설 방사선원의 보안과 테러 예방을 위해 전국 886개 방사선원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이 전면 가동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방사능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유·무선을 통한 실시간 방재대응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반 현장 방사능·방재 재난관리시스템이 가동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방사성 오염 등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형 원자력안전체제"를 구축, 가동에 들어간다고 1월 26일 밝혔다.

이는 가동중인 원전이 20기에 달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이 지난해 2천600개에서 올해는 2천900개로 크게 늘어나는 등 원자력 관련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른 대응조치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특히 오는 11월 월성 원전 일대에서 소방방재청 등과 공동으로 국가차원의 첫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명인 방재관을 8명으로 늘려 모의 방재 훈련과 주민대피, 사고 수습 등 현장 활동을 총괄토록 하고, 주재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원전시설 점검은 물론 원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과기부는 이어 방사능 사고에 대비,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방사능 재난관리를 위해 오는 5월 울진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설하고, 이어 내년에는 영광과 고리에 관련센터를 추가 설립키로 했다.

-내용출처 : 2006. 1. 26 연합뉴스

현장 중심의 원자력안전체제 가동

- 원자력안전 향상과 국민신뢰 증진에 기여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원자력안전체제"를 강화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의 원자력안전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안전관리대상 원자력시설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테러에 대한 위협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국가 차원의 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성 때문이다.

※ 원자력시설의 양적 증가

- 가동중 원전 20기, 건설중 원전 2기, 신규원전 4기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수 증가 '05년 2,600개→'06년 2,900개

※ 안전관리대상 원자력시설의 다양화

- 양성자가속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방재관 및 주재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원전 정기검사시 전담팀제의 도입 및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차등화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